

# 유튜브(YouTube)에 나타난 필사 문화의 특성

조영권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ranscription Culture on YouTube

Young-kwon Cho

Ph.D.,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유튜브(YouTube)에 나타난 필사 문화의 특성을 서사 분석 방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유튜브의 필사 문화에서 다섯 가지의 의미 있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튜브의 필사 문화는 첫째, 효율적인 글쓰기와 학습의 방편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텍스트를 더 깊이 읽고 이해하기 위한 필사라는 특성이 있었다. 셋째, 내 글쓰기로 나아가는 전략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 유튜버들은 필사를 통해 자기 치유와 위안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다섯째, 유튜브의 필사 문화는 왼손 글쓰기와 디지털 필사로 확장·진화하고 있었다. 유튜브의 필사 주체들은 글쓰기와 학습, 정신 수양의 방편으로 필사를 해왔던 전통적인 필사 문화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글쓰기 전략을 발전시키고 왼손 글쓰기와 디지털 필사로 필사 문화의 외연을 확장시켜 가고 있었다.

주제어 : 필사, 필사 문화, 글쓰기, 서사 분석, 유튜브(YouTube), 왼손 글쓰기, 디지털 필사

Abstract The study tri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ranscription culture on YouTube through narrative analysis methods. The study found five meaningful features in YouTube's transcription culture. YouTube's transcription culture was first characterized by efficient writing and learning skills. Second, there was a characteristic of a transcription to read and understand text more deeply. Third, it had the characteristics of five strategies to advance my writing. Fourth, YouTubers had time to self-heal and comfort through transcription. Fifth, YouTube's transcription culture has expanded and developed into left-handed writing and digital wri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YouTubers' transcription culture are expected to enrich the transcription culture that has been handed down for many years.

Key Words : Transcription, Transcription Culture, Writing, Narrative Analysis, YouTube, Left-handed writing, Digital writing

## 1. 서론 : 필사 문화의 역사성

필사 혹은 베껴 쓰기가 글쓰기에 입문하는 초심자들을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여겨진 것은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필사는 글쓰기와 지식 습득을 위한 핵심적인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기원전 4000년 후반에 존재했던 수메르 문명의 유적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필사로 학습을 한 모습이 발견된다. 수메르인은 표의 문자 체계인 켈리문자를 익히기 위해 진흙 서판에 동물 뼈나 나뭇가지로 글자를 베껴 쓰며 학습했다[1].

서로마제국이 망하고 르네상스에 이르는 1000년의 시기, 중세 시대의 필사 문화는 성직자와 수도원의 수도승에 의해 보존되었다. 수도원에서 필경 수도사들은 매일 하루에 서너 쪽씩 책을 베끼는 작업을 했다. 양피지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장의 양가죽이 필요했던 탓에 필사본 책을 소유하는 것은 소유자의 높은 신분과 재력을 상징하는 일이었다[2].

필사 문화가 정착된 것은 종이 발명된 이후 필사본 제작이 널리 유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서기 105년 후한의 채륜이 종이의 질과 제조법을 쓸 만한 수준으로 개량하면서 필사본 제작이 활발해졌고 이 시기 이후 종이 제작 기술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필사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필사한 책을 소장하거나 보급 책을 필사해서 장서로 보관한 비율이 중앙과 지방에서 간행된 책보다 결코 적지 않았다. 인쇄술이 지속적으로 발달했지만 필사본은 여전히 국가에서 발행한 간행본보다 앞선 제작 단계에 위치했다. 따라서 필사본이 간행본보다 종류에서도 양적인 면에서도 많을 수밖에 없었다[3].

『대학』이나 『중용』과 같은 서책의 가격이 논 2~3마지기에서 나는 한 해 소출과 맞먹을 정도로 조선시대 간행본의 책값은 아주 고가였다[4]. 따라서 귀한 서책을 얻게 되면 반드시 필사를 하는 것이 상례였다. 국회도서관에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모든 고서목록을 조사한 『한국고서종합목록』을 보면 간행본과 필사본의 양이 거의 반반이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고서 가운데 절반이 필사본 일 것으로 추정된다[5].

조선시대 많은 지식인들은 필사로 책을 제작하고 학습을 하는 필사 문화의 전통 속에서 살았다. 일례로, 학습 방식과 지식 전수의 방법으로서 필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필사를 통해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긴 다산 정약용은 제자들과 함께 530여 권의 서책을 저술했는데, 이 책들

은 원본을 그대로 깨끗이 베껴서 제작한 책이었다[6].

사회구성원에서 습득·전달·공유되는 생활양식을 문화라고 할 때 필사 문화는 이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전승해온 소중한 문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필사 문화의 역사성은 글을 베껴 적는 관습의 전승을 넘어서서 공유되는 문화적 맥락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필사는 학문에 입문하고자 하는 이들이 글을 익히는 학습의 요령이자 마음을 닦는 정신 수련법이기도 했다. 따라서 텍스트를 보면서 잘 써진 한자를 그대로 정확하게 옮겨 적으면서 학문하는 마음의 자세를 닦았다[7].

특히 한글 소설의 주된 독자이자 필사자였던 조선시대 여성들은 자신들의 필사 작업에 나름의 문화적 의미를 부여했다. 여성들은 필사 작업과 필사본을 만드는 과정에 자신들 삶의 애환을 담아내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생산했던 것이다[8]. 이들은 필사하는 작품에 감동하는 독자였고, 필사를 통해 외롭고 힘든 일상을 견뎌냈으며, 자신의 존재를 후손에 알리고자 애써 필사에 몰입했다. 필사가 다양한 맥락에서 향유되는 문화 행위였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필사 문화의 이 같은 특성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많은 시인과 소설가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선배 작가의 작품을 필사하면서 창작 세계에 입문했다. 안도현 시인은 백석 시인의 작품을 필사했다고 밝혔고[9], 시인이면서 소설가인 고수유 작가도 습작 시절 장그르니에의 대표작 <섬>을 반복해서 필사하고 문장을 변형해 쓰면서 창작력을 키웠다고 했다[10]. 소설가 정유정 씨는 스티븐 킹의 소설을 여러 차례 필사하면서 스릴러 장르의 시각적 표현을 익혔으며, 최옥정 작가는 다양한 문체를 연습하기 위한 필사 방법을 자신의 소설작법 책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11]. 작가들이 쓴 책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개했던 필사에 관한 담론들은 인터넷 블로그를 거쳐서 1인 미디어 공간인 유튜브(YouTube.com)에까지 확산됐다. 유튜브에는 필사와 관련된 새로운 영상이 매일 쉬지 않고 게시되고 있다. 필사를 주제로 올린 영상들은 필사를 소개하는 글에서부터 필기구와 노트를 소개하고, 자신이 필사하는 모습을 녹화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 또한 아주 다양하다.

유튜브에서 필사는 이제 글쓰기 문화의 비중 있는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유튜브[12]들은 왜 필사에 주목하고 있으며, 필사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떠한가?. 또한 그 결과로 드러나는 유튜브버들의 필사 문화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유튜브에서 나타나는

현대적인 필사 문화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오랜 역사를 거쳐 전승된 소중한 글쓰기 문화로서 필사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선행 연구

필사 문화의 오랜 전통과 그 활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필사 혹은 베껴 쓰기에 관한 연구는 우선 양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필사에 관한 지난 연구들은 조선시대에 널리 확산돼 있던 필사 문화의 맥락을 살피고 외국어 학습에서 필사의 효과를 검증했다.

이지영은 조선시대 한글 필사본에 나타난 한글 필사의 문화적 맥락을 고찰하고 당대의 필사가 필사본을 만들기 위한 목적 외에도 글씨를 익히고 학습하거나 텍스트를 자세히 읽고 마음의 위안을 삼으며, 자신의 존재를 필체를 통해 남기기 위해서였다고 분석했다[13].

양진석은 필사가 초학자의 독서와 학습의 목적을 가짐과 동시에 선비로서의 집중력 향상과 정신수양을 위한 수련행위였으며, 경제력이 부족한 개인도 저술을 남길 수 있는 방안이었다고 보고했다[14]. 유승미는 베껴 쓰기를 활용한 효과적인 글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베껴 쓰기는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논리적, 분석적 사고 활동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맞춤법, 문체, 고급 수준의 문장 표현법, 수사법 등을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15].

박상옥·이유진은 대학생들의 영어 쓰기 실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베껴 쓰기와 요약하여 쓰기 방법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베껴 쓰기와 요약하여 쓰기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16].

베껴 쓰기를 활용한 표현적 글쓰기가 베트남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이인선은 베껴 쓰기를 활용한 표현적 글쓰기가 작업기억과 단어 기억을 향상시키고 한국어 학습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했다[17].

필사에 관한 연구들은 이처럼 양적으로 아주 적지만,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필사 문화가 존재했음과 더불어 필사의 학습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확인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유튜브에 올려진 필사와 관련된 영상 내용

을 분석하여 그 의미 맥락을 규명하고자 했다.

유튜브 앱은 국내 사용자가 2020년 10월 이미 4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1인당 월평균 사용 시간도 29.5시간에 이르고 있다[18]. 유튜브는 영상 공유는 물론 정보와 학습에서도 1인 미디어의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으며, 문학과 교육, 예술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의 트렌드를 앞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매체가 되었다.

미디어 연구에서도 유튜브는 연구자료로서 주목받는 매체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필사나 글쓰기와 같은 좀처럼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개인적인 문화 활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는 아주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연구를 위하여 유튜브에서 ‘필사’, ‘베껴쓰기’, ‘글쓰기’, ‘읽겨 쓰기’, ‘왼손 필사’ 등 5개 주제로 관련 영상을 검색했다. 연구 대상의 영상 등록 기간은 필사 관련 동영상이 집중적으로 올라온 2017년부터 2021년(최종 검색일 : 2021. 3. 20.)까지로 제한했다.

연구 기간 내에 선정된 유튜브 동영상들 가운데 목소리 혹은 자막을 통해 필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5~10분 길이의 동영상을 선택했다. 연구 대상 수집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32편의 유튜브 영상을 선정했다. 선정된 동영상을 시기별로 보면 2021년 4편, 2020년 13편, 2019년 10편, 2018년 2편, 2017년 3편이었다.

Table 1. Research Target Information

No.	Career	Subject	Year
1	Writer	Transcription and Writing	2020
2	Booktuber	The Effect of Transcription	2019
3	Writer	Handwriting vs. Typing	2017
4	Consultant	Business Transcription	2018
5	Booktuber	Changing Style	2020
6	YouTuber	Handwriting Reading	2020
7	Interpreter	English Transcription	2021
8	YouTuber	Left-Handed Writing	2020
9	YouTuber	Transcription	2020
10	Transcription Leader	Transcription for English Learning	2019
11	YouTuber	Basics of Transcription	2019
12	Booktuber	Transcription	2020
13	Teacher	Transcrip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2020
14	Broadcaster	English Transcription	2019
15	YouTuber	Transcription Advantages	2020
16	Student	Newspaper Copy	2021
17	Writer	Reading	2020
18	Booktuber	Reading	2020
19	Transcription Leader	English Grammar Transcription	2017

20	Novelist	Become a Writer	2019
21	YouTuber	Left-Handed Writing	2020
22	YouTuber	Transcription's Joy	2019
23	YouTuber	Office Worker Reading	2019
46	YouTuber	English Transcription	2021
25	TranscriptionLeader	Group Transcription	2019
26	YouTuber	Handwriting	2021
27	Transcription Leader	Handwriting	2020
28	Teacher	Reading and Transcription	2020
29	Broadcaster	Logic and Transcription	2019
30	YouTuber	How to Transcribe	2019
31	YouTuber	Article Writing	2017
32	Publisher	Left Hand Writing	2018

자료 분석을 위해 서사 분석 방법론을 활용했다. 서사 이론(narrative theory)은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연구에 유용한 분석틀이다. 이는 서사가 세계를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 체계이자 의미 전달 형식이기 때문이다[19]. 유튜브는 텔레비전 이후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서사 매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유튜브 영상은 언제나 특정한 이야기 구조를 가진 서사로 구성된다.

서사는 이야기(story)와 담화(discourse)로 구성된다. 따라서 서사 분석은 '누구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이야기' 분석과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관한 '담화'에 대한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이야기가 표현된 내용이라면 담화는 표현하는 형식이다[20]. 모든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담화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낸다.

미디어에서 서사는 텍스트를 발화하는 주체들이 자기 의도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담화로 표출된다[21]. 이야기의 표출 형식으로서 담화(discourse)는 개인들이 행위하고 소유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기호나 언술들의 체계적인 집합체이며, 구체적으로는 영상을 통해 나타나는 목소리와 자막, 몸짓과 행위 등으로 드러난다[22].

담화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계열체적·통합체적 선택과 결합을 통해 특정한 의미를 구성한다[23]. 여기서 맥락(context)은 텍스트와 관계 맺는 것들의 지시적·사회적·문화적 집합이며, 이는 텍스트 생산 과정과 텍스트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며[24]. 통합체(paradigm)는 단어와 어구와 같은 언술들이 규칙에 의해 순서적으로 배열된 기호의 조합을, 계열체(syntagm)는 단어·어구 등과 같이 규칙에 따라 서로 교체할 수 있는 일련의 언술들을 가리킨다[25].

이 연구는 특정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지칭하는 스토리와 이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선택되고

결합하는 기호와 언술의 집합체로서 담화를 분석함으로써 유튜브 미디어가 특정한 서사 구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만 필사에 관한 유튜브버들의 영상은 1인 미디어라는 특성과 글쓰기에 관한 영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영상의 몸짓과 행위에 대한 분석은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주로 사건들을 기술하는 어휘와 문장과 같은 언술과 담화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 같은 서사 분석 방법으로 오늘날 유튜브버들이 어떤 언술과 맥락을 동원해 필사 문화에 관한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4. 연구 결과

필사 관련 유튜브 영상 32편에 대한 분석 결과, 유튜브버들의 필사 문화에서는 다섯 가지 문화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 가지 문화적 특성은 ① 효율적인 글쓰기와 학습의 방법, ② 텍스트 더 깊이 읽고 이해하기, ③ 내 글쓰기로 나아가기 전략, ④ 자기 치유와 위안의 시간, ⑤ 도구의 확장 : 왼손 글쓰기와 디지털 필사였다. 연구 결과 도출된 특성들을 살펴보면, 유튜브의 필사 주체들은 능동적인 태도와 주도적인 행동 방식으로 필사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전통적인 필사 문화보다 훨씬 다양한 지점과 영역에서 필사 문화를 형성하고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The Five Characteristics of Transcription Culture on YouTube

Main Characteristics
1. Efficient Writing and Learning Methods
2. Reading and Understanding Text Deeper
3. Strategies for Advancing My Writing
4. Time for Self-healing and Comfort
5. Expansion of Tools: Left-handed Writing and Digital Writing

### 4.1 효율적인 글쓰기와 학습의 방법

필사는 모방 학습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글쓰기 방법이다. 필사를 하는 유튜브버들도 이 사실에 주목했다. 필사를 통해 유튜브버들은 글쓰기와 학습의 초기 부담을 완화시키면서도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었다. 유튜브버들은 문장력과 어휘력과 표현력, 문장 구조 익히기와 글씨 교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목표들을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었다고 각자의

경험을 말했다. 처음부터 자기 글을 쓰기란 쉽지 않은 법인데 우선 좋은 글들을 베끼면서 시작한다면 누구라도 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페이지 베껴 쓰는 거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그냥 펴서 딱 한 페이지만 베껴 써야겠다. 이해는 뭐 나중에 하고 그래서 굉장히 책을 펴기 쉽게 만들어 주고 꾸준히 읽게 되는 거죠.” <유튜버 27>

글쓰기 목적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유튜버들이 적극적으로 필사를 하는 이유였다. 필사는 유튜버들에게 쉽고 편하게 글쓰기에 접근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문장력 강화라는 목적을 단기간에 빠르고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한 유튜버는 소설을 쓰겠다는 작가 지망생들이 소설을 구조와 세부를 실질적으로 익힐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필사만한 게 없다고 했다. 신문 기사를 작성할 때에도 필사는 적극적으로 채택되는 효과적인 글쓰기 방안이었다. 또 다른 유튜버에서는 기사를 여러 차례 필사한 뒤 같은 주제와 어휘로 자신의 기사를 써봄으로써 빠르게 숙련된 기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했다. 기획서나 보고서, 제안서와 같은 실용적인 비즈니스 글쓰기 분야에서 필사는 효율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었다.

“필사만큼 글쓰기 실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설 전체의 구조적인 내용은 물론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냥 읽었을 때와는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유튜버 20>

“남이 쓴 기사를 무조건 베껴 쓰세요. 신문 1면 톱을 올려놓고 오른쪽에 백지를 갖다 놓으세요. 그것을 그대로 10번을 베껴 쓰세요. 계속 베껴 쓰시면 됩니다. 한 2주 동안 베껴 쓰세요.” <유튜버 31>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 한 자 빠뜨리지 마시고 한번 써보십시오... 기획서, 보고서, 제안서 등 글의 힘을 기르고 싶다면 필사 한번 권해드립니다.” <유튜버 4>

유튜버들은 이 같은 문장력을 기르는 데 있어 빠른 접근성과 실효성은 어휘력과 표현력, 논리력과 철자법을 기르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필사는 어휘력을 늘리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소개되었다.

유튜버들은 필사를 하면 어휘력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신장’되고 ‘증가’한다고 언급했다.

어휘력의 증가가 표현력을 개선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유튜버들은 논리적 표현력을 개선하거나 문학적 표현력을 기르는 데에는 필사하는 게 큰 도움이 되었다며 텍스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필사는 책에 더욱 집중하게 해줘서 어휘력이 점점 풍부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읽었을 때 느꼈던 그런 어휘력 향상과 필사를 통해 천천히 음미하면서 얻게 되는 어휘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유튜버 27>

“글을 쓰다 보니까 조금 표현력에 한계 같은 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시집을 읽고 필사하곤 합니다. 시에서는 굉장히 독창적인 표현이 많더라고요.” <유튜버 12>

“논리적인 표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사가 좋습니다... 짧은 논평 혹은 칼럼 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베껴 써보는 거죠. 필사 예찬론자 같은데, 정말 필사 효과 빨리 봅니다.” <유튜버 29>

필사로 맞춤법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는 점과 글씨 교정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유튜버들이 필사하는 글은 이미 전문가의 교열과 교정 작업을 거쳐서 잘 걸러진 문장들이기 때문이다.

필사를 통해 글씨체를 교정할 수 있다는 언급은 초등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유튜버에게서 언급되었다.

“올바른 맞춤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더불어 띄어쓰기까지도요. ‘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외 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튜버 27>

“요즘 아이들은 글씨체가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쓴 글자를 스스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필사의 방법은 다목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버 28>

유튜버들은 외국어를 학습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도 필사를 권했다. 한 유튜버는 필사로 영어의 기초를 다졌으며, 외국에서 공부한 적 없지만 동시통역사가 되어 전 문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외국어

를 학습하는 필사 방법도 한글 글쓰기를 위한 필사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필사하는 것이 더 강조되었다.

동시통역사이거나 유학의 경험을 가진 영어 필사 유튜버들은 의미 단위로 기억한다든지 어떤 텍스트가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자신의 학습 경험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쉬운 문법책을 옆에 놓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해서 풀고 필사합니다...문법책에 나온 내용을 노트에 설명부터 차근차근 받아 적으면서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겁니다.” <유튜버 19>

“텍스트를 베껴 쓰다보니 자연스럽게 영어를 체화할 수 있었습니다...문장이 긴 경우, 혹은 전체가 다 기억나지 않는다면 문장을 의미 단위로 기억해서 필사합니다.” <유튜버 7>

“제가 흥미 있게 읽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옮겨 적은 과정을 거치니까 너무 재밌었고 영어 실력도 향상이 되었어요. 저는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데...그런 지문을 필사하는 거예요.” <유튜버 10>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튜버들은 ‘실효성’의 맥락에서 필사를 수용하고 있었다. 유튜버들은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문장력’과 ‘어휘력’, ‘표현력’ 등을 짧은 시간에 높이고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언술을 사용해 필사가 글쓰기와 학습 능력을 증진하는데 실효성을 갖는 방법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 4.2 텍스트 더 깊이 읽고 이해하기

유튜버들에게 있어서 필사는 단순한 베껴 쓰기가 아니라 텍스트를 더욱더 깊이 읽고 이해하는 심화된 독서의 과정이었다. 유튜버들은 독해가 어려운 책을 필사를 통해 이해하는 과정이 ‘밥을 꼭꼭 씹어먹는 느낌’이라고 했다. 눈으로 읽었을 때에는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필사를 하면서 다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결국 문장 구조가 눈에 들어오고 낯선 어휘들이 명확하게 이해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필사한 텍스트는 기억에 오래 남았다고 했다. 필사를 하면서 책을 읽는 과정은 손으로 책을 읽는 작업으로 텍스트를 꼼꼼하고 자세하게 읽음으로써 유튜버들은 책의 내용을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러한 경험은 필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였다.

“세 번째 글을 읽었는데 조금 어렵다. 이럴 때에도 필사를 하는 편이에요. 쓰면서 좀 더 공부하고 기억하고 되새겨보는 거죠. 그럴 때 필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유튜버 2>

“눈으로 쓱 읽었을 때 바로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문장들 내용들을 글로 써가면서 구조를 파악하고 좀 더 밥을 꼭꼭 씹어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유튜버 22>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는 것은 흔히 글의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며, 문맥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문장의 구조가 이해되고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면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읽고 있는 책에 더욱더 몰입할 수 있다.

내용 일부를 발췌해서 필사하는 방법도 텍스트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언급됐다. 유튜버들은 책을 읽다가 자신의 마음에 다가오는 대목이나 책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발췌해서 필사했다. 그러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는 것이다.

“발췌 필사는 필사를 하면서 내용을 좀 더 천천히 숙성시키듯이 음미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중요한 부분을 선별해 낼 줄 아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을 그저 평면적이고 병렬적으로 베끼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 잘 납니다.” <유튜버 18>

하지만 텍스트를 단순히 베껴 쓰기만 하는 것은 금기시되었다. 필사가 제대로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글자만 옮겨다 적는 일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진지하게 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사는 그저 글이 내용을 옮겨 적는 필경사의 노릇을 하는 게 아니다. 온전히 더 꼼꼼하게 책을 읽고 더 깊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 섬세한 작업이었다. 글 쓰는 것 자체에만 집착해서는 본래 목적인 텍스트의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사하는 텍스트의 의미와 구조를 이해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베껴 쓰기는 읽기 근육을 만드는 쉽고 빠르고 근사한 방법이지만 진지하게 읽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글자만 옮겨 쓰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유튜버 17>

“쓰는 것 자체에만 집중해 가지고 글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필사는 정말 팔만 아프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필사예요...그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문장을 음미하려고 노력하면서 집중해서 필사를 해야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유튜버 5>

필사를 통해 텍스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공감의 맥락에서 설명되었다. 한 유튜버는 필사를 하는 것이 텍스트의 세계와 필사자의 경험이 연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손으로 글씨를 쓰면서 그 연결들이 더욱더 강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독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저자가 하는 말이 내가 살아왔던 경험하고 연결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손필사를 할 때 연결이 더 강하게 생기는 것이죠. 경험의 연결, 저자와의 연결, 다른 책들과의 연결, 세상 그 모든 것들과의 연결을 위해서 손으로 하는 필사를 권해드립니다.” <유튜버 3>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영어 학습 필사를 제안하는 유튜버들의 생각과도 일치했다. 필사로 영어 문장을 쓸 때도 먼저 단어와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뒤에야 필사 학습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이다. 필사를 통해 영어 학습 능력을 높이려고 했다면 먼저 텍스트에 있는 문장을 깊이 음미하고 이해하면서 필사를 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영어 필사는 그래서 ‘이해 기반의 학습’으로 일컬어졌다. 유튜버들은 이해 기반 학습이 되는 순간 필사의 효과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해되지 않으면 필사는 무의미한 손동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필사라는 것도 영어를 베껴 적으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영어의 구조, 영어의 문장, 영어의 전치사,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관사 정관사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보는 그러면서 영어를 보는 시각이 좀 더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버 7>

필사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베끼는 동작만 반복했다면 학습 효과가 있을 수 없다. 유튜버들은 ‘텍스트를 보면서 왜 이렇게 쓰여 있는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필사를 한다면 분명히 학습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유튜버는 영어 필사 학습의 구체적인 단계를 소개했는데, 각각의 단계들은 영어 학습 필사가 얼마나 ‘깊이

있는 읽기와 이해’를 전제로 하는지 보여준다.

“필사는...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써가면서 문장의 어휘와 구조 그리고 의미, 문맥 등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영작을 위한 필사를 통해 200%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튜버 14>

“첫 단계로는 텍스트를 철저하게 분석한 뒤에 모르는 단어, 부분 독해를 했을 때 이해가 완벽하게 된 텍스트고릅니다. 다음에는 문장을 두어 번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체 문장을 써보는 것입니다.” <유튜버 7>

유튜버들은 ‘이해가 완벽하게 된’ 텍스트, ‘정확하게 파악’,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문장 구조가 익숙해지기 전까지’와 같은 언술들을 사용해 필사가 단순한 베껴 쓰기 작업이 아닌 반드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 4.3 내 글쓰기로 나아가기 전략

필사로 다져진 어휘력과 표현력, 그리고 익숙해진 문장 구조를 활용해 유튜버들은 자신의 글쓰기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 유튜버들은 영상에서 텍스트를 베껴 쓰는 필사에서 내 글쓰기로 나아가는 다양한 전략들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전통적인 필사자들의 태도와는 크게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필사가 새로운 텍스트를 창조하기 위한 예비 작업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시사한다. 이런 점에서 유튜버들은 오늘날 필사 문화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 주체이다.

유튜버의 필사자들이 자신의 글쓰기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은 다섯 가지로 확인된다.

- ① 필사 과정에서 느낀 점과 생각을 행간 혹은 별도의 독서 노트에 쓰기.
- ② 필사한 텍스트의 내용을 일정한 분량으로 요약하기.
- ③ 필사한 텍스트의 개념과 사실, 표현 등을 활용해 동일한 주제로 자신의 글을 써보기.
- ④ 필사한 텍스트의 구조를 따라서 다른 주제로 자신의 글을 써보기.
- ⑤ 앞선 네 가지 자기 글쓰기 전략으로 작성한 글을 SNS, 인터넷 카페, 단체 필사 카페 혹은 블로그에 올려 피드백 공유하기.

이러한 내 글쓰기 전략이 가능해지는 이유를 유튜버들은 필사를 하면서 글쓰기 능력이 자연스럽게 배양되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한 유튜버는 자신이 필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졌다고 했다. 자연스럽게 글로 쓰고 싶은 것이 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이 자유로워진 것을 알게 되면서 글쓰기가 정말 즐거워졌다고 했다.

“필사를 통해서 몰랐던 단어들을... 알게 되면 다음에 내가 어떤 글쓰기를 할 때 그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것이야말로 필사가 지향하는 어떤 목표이자 효과입니다.”  
<유튜버 5>

유튜버들은 이처럼 필사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글쓰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봤다.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 필사를 하고 오랜 필사의 과정에서 자신의 글쓰기 능력이 개선됐음을 확인하면서 유튜버들은 텍스트를 보고 느낀 점과 생각을 행간에 적거나 별도의 노트에 적어가는 자기 글쓰기의 첫 번째 전략을 시작했다.

필사에서 자신의 글쓰기로 나아가는 것은 텍스트를 깊이 읽고 이해하는 필사의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필사한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적어가는 것에서 자신의 글쓰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베껴 쓰기를 하면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하는 한편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글로 써보세요. 원문에 대한 나의 생각 느낌을 다른 한 편의 다른 글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베껴 쓰기가 최고의 읽기 연습이며 최상의 쓰기 연습임을 실감합니다.” <유튜버 17>

내 글쓰기로 나아가는 두 번째 전략은 필사한 글의 내용에서 핵심만을 골라서 아주 짧은 글로 써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문 칼럼이나 사설을 요약해서 써보거나 신문 기사를 요약해서 적어볼 수 있다. 소설을 읽고 줄거리를 요약해보는 방법도 좋다. 신문 칼럼을 요약하지는 아래 제안은 텍스트를 어느 정도의 분량을 요약하면 좋을지를 시사한다.

“베껴 쓰기를 한 다음 그 내용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1,500자 칼럼이라면 100자 이내로 요약해 보는 거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유튜버 17>

내 글쓰기로 나아가는 세 번째 전략은 필사한 텍스트에서 익힌 어휘와 표현, 독특한 아이디어 혹은 사실,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같은 주제의 글을 써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문 기사를 필사했다면 기사와 핵심 개념과 사실들에 기초해서 자신이 직접 기사를 써보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사 내용의 드러난 사실들, 팩트를 별도로 메모하세요. 그 메모를 하신 걸 가지고 신문을 덮고, 그 메모한 걸 기초로 해서 다시 기사를 작성해보세요. 그리고 원고하고 자기 기사하고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연습을 계속하시면 상당한 정도까지 단기간에 글 쓰는 테크닉이 올라갈 겁니다.” <유튜버 31>

네 번째 내 글쓰기로 나아가는 전략은 필사한 텍스트의 구성만을 그대로 ‘따라 쓰기’하는 것이다. ‘따라 쓰기’란 필사한 텍스트의 주제와는 다른 주제를 설정하고 텍스트의 구성만을 그대로 따라서 다른 글을 써보는 일이다. 필사가 텍스트의 마침표 하나까지 모든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라고 했다면 ‘따라 쓰기’는 텍스트의 전체의 구성만 따라서 쓰고 자신이 원하는 다른 주제의 글을 완성하는 전략이다.

“나는 내 주제를 정해요. 칼럼 주제와 다른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텍스트의 저자)이 어린 시절 일화를 소개하면 나도 내 어린 시절 일화를 소개하고, 그 구성을 따라가는 거죠. 실제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전 선배들이 써 봤던 보고서나 기획서 이걸 참고하잖아요. 구성을 참고하는 거죠.” <유튜버 1>

내 글쓰기로 나아가는 다섯 번째 전략은 앞서 네 가지 전략으로 쓴 자신의 글을 SNS 혹은 블로그, 단체 필사 카페 등에 올리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다. 유튜버들은 자신이 느낌이나 의견, 요약한 글, 같은 주제나 혹은 다른 주제의 글을 SNS 혹은 블로그, 단체 필사 카페 등에 올려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이처럼 자신이 쓴 글을 SNS와 블로그, 필사 카페 등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얻게 되면 사고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자신의 글쓰기에도 한층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동기부여가 된다고 했다.

“나의 의견을 따로 정리해서 써보는 것도 추가 글쓰기 연습을 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SNS에



올려서 내 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다음 글쓰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버 5>

"그러다가 너무나 좋은 내용은 블로그에 바로 글을 올렸어요. 책을 읽다가 좋은 내용은, 이거는 바로 글을 써야 돼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블로그에 바로 글을 올려요." <유튜버 13>

"자신의 생각을 같이 오픈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한 권을 여러 사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집단지성의 힘이 느껴지실 거예요." <유튜버 25>

단체 필사 카페 등에 자신의 글을 공개하는 일을 자신의 글쓰기를 자극하고 촉진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필사를 더욱더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내 글쓰기로 나가는 다섯 가지 전략은 필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다양한', '생각', '느낌'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며 '집단지성'에 이를 수 있다는 유튜브 필사 문화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특성을 드러낸다.

#### 4.4 자기 치유와 위안의 시간

글을 쓰면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느낌은 필사를 하는 유튜버들이 일상으로 갖는 심리 상태였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마치 명상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고 했다. 이것은 필사가 글을 쓰는 사람의 감정을 정화하며 자신의 내면을 다독거리는 효과를 갖게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필사가 이뤄지는 시공간이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내면 깊숙이 들어갈 앓을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필사는 글쓰기로 현실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거리고 치료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26].

한 유튜버는 자신이 필사하는 이유를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동영상 구성 역시 몇 마디 소개를 마친 뒤에는 조용한 음악과 함께 필사를 하는 장면으로 구성했다. 또 다른 유튜버 역시 유튜버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필사의 장점을 말했다. 필사를 하면 잡념이 사라지면서 글씨를 쓰는 데에만 집중하게 된다고 했다. 글씨를 쓰는 것이 정신 수양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오늘은 마음 필사 책을 가지고 함께 필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는 글씨를 잘 쓰지 못하지만 필사를 하다보

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더라고요." <유튜버 9>

"문장을 따라 쓰다보니까 뭔가 마음이 정화되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글씨 연습을 하는 효과도 있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집중할 수 있으니까 정신이 깨끗해지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유튜버 12>

"필사만으로도 사람이 차분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잡생각이 없어지며 온전하게 글씨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정신 수양하기 딱 좋습니다." <유튜버 26>

펜을 쥐고 글씨를 쓰는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유튜버들은 필사를 하면서 집중력이 높아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튜버들은 그런 자신의 경험을 언급했다.

물론 고정된 자세로 앉아서 텍스트를 옮겨 적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유튜버들은 그런 힘든 작업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게 되면 마치 명상을 한 것과 같은 고양된 마음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유튜버는 그런 필사의 특성을 '뇌가 하는 요가'라고 적절하게 비유했다.

"필사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내가 명상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할 때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뇌가 하는 요가랄까?" <유튜버 15>

"필사는 정말 힘든 작업이었어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도 다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필사를 하고 나니 마치 명상을 한 느낌과 비슷하게 정확도 되고 뿌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유튜버 11>

"필사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필사를 하는 동안은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잡생각이 없어지고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버 5>

정서적 안정감이란든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진술은 컴퓨터 타이핑을 하는 유튜버들보다는 손글씨로 필사를 하는 유튜버들에게서 자주 발견됐다. 컴퓨터 타이핑을 하는 유튜버들은 문장력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필사를 언급하곤 했는데, 손글씨로 필사를 하는 유튜버들은

문장력을 키우는 방편으로 필사를 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꼈다고 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 유튜브버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눈을 감고 있거나 아니면 시를 필사했다고 말했다.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과 시를 필사하는 행동이 비슷한 수준에서 마음을 안정시켜준다는 얘기이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있거나 아니면 필사를 하는 방법으로 집중력을 되찾습니다. 이럴 때는 아주 짧게 5분 10분 정도 필사를 하는 편이에요. 이 방법은 짧은 시간 내에 집중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유튜버 2>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집중력을 회복하는 경험은 텍스트와 필사자 사이에 정서적 교감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신이 공감하는 대목, 좋은 문장들과 기억하고 싶은 표현을 보고 필사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이다.

유튜버들은 책을 읽을 때 마음을 움직이는 좋은 문장, 울림이 큰 대목, 감동을 주는 구절, 문체가 수려한 글을 만나면 항상 펜을 들었다고 했다.

“정말 좋은 문장들, 오래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을 필사합니다. 책을 읽다보면 마음을 건드리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라도 꼭 한번 다시 펴보고 싶은 문장들을 필사할 때가 많아요.” <유튜버 2>

“내 마음의 울림을 주는, 감동을 주는 그런 글을 콧 찍어서 필사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또 문체가 수려한 글이라든지 호흡이 긴 글들을 천천히 곱씹어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튜버 15>

유튜버들 가운데에는 손으로 글씨를 쓰는 작업 자체가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었다. 손을 움직이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운동을 할 때 잡념이 줄어들어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필사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자기 치유의 담화는 ‘마음’, ‘차분해지고’, ‘고요해’, ‘정화’, ‘집중’, ‘깨끗’, ‘온전’, ‘정신수양’, ‘감동’과 ‘재미’, ‘흥미’, ‘스트레스 해소’ 같은 언술들로 선택되고 결합되어 정서적 안정감과 필사의 즐거움을 직접 드러내는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영어 필사를 하는 유튜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 4.5 도구의 확장 : 왼손 글쓰기와 디지털 필사

‘도구’의 개념을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의한다면, 유튜브의 필사 문화에서 나타나는 왼손 글쓰기와 디지털 필사는 필사 도구의 확장이라는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확장된 필사의 도구로서 왼손 글쓰기와 디지털 필사는 전통적인 필사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특성으로 현대의 필사 문화가 새로운 범주와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상정한다.

오른손 중심의 손글씨 쓰기가 주류인 필사 문화에서 왼손 필사는 사고와 행동의 균형감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필사는 컴퓨터화된 사무 환경에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효율성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왼손 필사 혹은 왼손 글쓰기를 하는 유튜버들이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왼손 필사에 관한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은 왼손 글쓰기가 훨씬 더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꾸준히 한다면 학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또 우뇌를 단련시키면 사고와 행동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연구 사례들을 들어 오른손 글쓰기에 더해 왼손 글쓰기까지 하면 더 큰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27].

왼손 필사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한 유튜버는 왼손으로 글씨를 쓰게 되면 좌뇌와 우뇌 사이의 공조와 협응을 자극해서 더 나은 지적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8].

“왼손으로 쓰면 글쓰기와 말하기, 읽기는 물론 기억력과 집중력 외국어를 포함해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만한 정도로 좋아집니다. 왼손 필사를 하게 되면 작업 기억이 강화되면 직장에서는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학교에서는 학습 능력이 좋아집니다.” <유튜버 32>

한 유튜버는 오른손잡인데 왼손으로 한 달 동안 왼손으로 글씨 쓰기를 연습한 것을 영상으로 올렸다. 왼손 글씨는 처음에 삐뚤빼뚤 잘 써지지 않았고 연필 잡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글씨체가 점점 나아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줬다. 자주 쓰지 않아서 글씨를 쓰는 것이 힘들지만 꾸준히 연습을 한다면 왼손 글씨도 편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유튜버는 왼손 필사 역시 오른손 필사와 마찬가지로 집중력을 높이고 명상을 하는 느낌을 주었다고

말했다. 자신은 오른손잡이이지만 왼손잡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왼손을 처음 쓸 때는 연필 잡는 것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가로 세로 획을 긋는 것도 똑바르게 잘 그을 수 있어요...처음부터 연습한 기록을 돌아봤습니다. 확실히 연습하니까 서서히 늘었네요. 마음먹고 하면 충분히 왼손으로 자유롭게 글씨를 쓸 수 있겠습니다.” <유튜버 8>

“왼손 글쓰기를 매일 반복하면서 명상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확실히 낯선 도전이었기 때문에 매 순간 집중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유튜버 21>

왼손 필사와 함께 텍스트를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디지털 필사는 현대 필사 문화의 뚜렷한 특성이다. 필사의 본래 의미는 필기구로 한 글자씩 옮겨 적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컴퓨터 타이핑을 필사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필사의 의미를 ‘베껴 쓰는’ 것으로 넓혀 본다면 필기구를 사용하던 컴퓨터 타이핑으로 텍스트를 옮겨 적든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유튜버들의 필사 문화에서는 펜을 손에 쥐고 필사를 하는 경우와 컴퓨터 타이핑으로 필사를 하는 사례가 공존했다. 물론 디지털 필사보다는 손글씨 필사가 여전히 우세했다. 필사 문화에서는 손글씨를 쓰는 아날로그 필사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디지털 글쓰기라는 필사 문화가 공존하는 셈이었다.

시와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을 감상하거나 필사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텍스트의 깊이 있는 이해와 정서적 안정감까지 만끽하고자 하는 이들은 주로 손글씨로 필사를 했다. 손글씨로 필사를 하면 텍스트를 천천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한 유튜버는 손글씨 필사와 디지털 필사를 한 달 여행과 3일 여행에 비유해서 설명했다.

“3일 본 거랑 한 달 동안 천천히 둘러본 거랑은 다르죠. 필사는 한 달 동안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구석구석 돌아보는 정신적인 여행이라고 오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워드로 빨리 치시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것만큼 그다지 효과가 없어요.” <유튜버 3>

손글씨 필사와 디지털 필사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필사를 진행하는 속도의 선택 문제였다. 손글씨 필사

를 선택하는 유튜버들은 컴퓨터 타이핑으로 필사를 하다 보면 지나치게 빨라서 생각을 할 여유가 크게 줄어들어 필사의 다양한 효과를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시속 100km 이상으로 타고 가면 그 중간 중간에 경치가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필사도 마찬가지로 글자를 천천히 쓰게 되면 그 글자와 글자 사이의 어떤 풍경, 그 글자가 내포하는 어떤 이미지, 그 문장이 알려주는 어떤 힌트들을 취하게 됩니다.” <유튜버 20>

필사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컴퓨터는 필기도구의 기능적 확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디지털 필사는 대체로 비즈니스 분야에서 자주 활용했다. 또한 필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거나 필사해야 하는 양이 많을 때, 또는 출간과 연구를 위해 자료를 모으는 경우나 영구적인 보관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디지털 필사를 주로 사용했다.

디지털 필사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지를 받는다. 한 유튜버는 신문 칼럼을 필사할 때 컴퓨터 타이핑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언급했다. 기획서와 보고서, 제안서와 같은 비즈니스 글쓰기 분야에서는 단연 디지털 필사가 우세했다.

“글이 상당히 잘 써진 그런 책들을 한 권을 골라서 한 권을 그대로 PC에다가 옮겨 써보시는 거죠. 기획서, 보고서, 제안서 등 글의 힘을 기르고 싶다 그러시면 한번 권해드립니다.” <유튜버 4>

“단 한 편이라도 매일 공들여 하는 것이 하루 열 편씩 가끔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베껴 쓰기는 에버노트 같은 어플이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또는 워드 파일에 하면 됩니다.” <유튜버 17>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 각기 다른 매력이 있어 둘 다 애용 중인데, 독서노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직장인이라 쓸 말이 많은 책은 디지털로 남기는 게 더 좋더라고요.” <유튜버 23>

이처럼 왼손 필사 혹은 왼손 글쓰기는 사고와 행동의 균형으로 학습과 기억을 촉진할 것이란 이점을 강조하는 ‘기억 강화’, ‘업무 능력 증진’, ‘낯선 도전’, ‘타인에 대한 이해’와 같은 실용성과 도전, 소통 능력을 강조하는 언술들로 이미지와 담화가 구성되었다.

반면에 손글씨 필사와 디지털 필사는 경쟁과 대립의 이미지로 나타났다. 손글씨를 지지하는 유튜버들은 손글씨 필사를 ‘천천히’, ‘구석구석’, ‘정신적’, ‘여행’, ‘경치’, ‘풍경’과 같은 정서적 측면에 호소하는 언술들로 구성했으며, 이러한 언술들은 ‘직장인’, ‘기획서’, ‘보고서’, ‘워드’와 같은 현대인들의 사무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디지털 필사의 언술들과 대립되는 담화 구조를 형성하였다.

## 5. 결론

이 연구는 필사가 오랜 역사에 걸쳐 전승되어온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인식 아래, 현대의 대표적인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필사 문화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유튜브의 필사 주체들은 전통적인 필사 문화의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맞춰 나름의 독특한 필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유튜브의 필사 문화는 다섯 가지의 유의미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튜브의 필사 문화는 첫째, 효율적인 글쓰기와 학습의 방편으로 필사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유튜버들은 글쓰기와 학습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사를 했다. 그런 과정에서 목적에 맞는 텍스트를 선택하고, 효과적인 글쓰기와 학습 요령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했다.

둘째, 텍스트를 더 깊이 읽고 이해하기 위해 필사를 하는 특성이 있었다. 유튜버들의 필사는 단순한 베껴 쓰기 작업이 아니었으며, 텍스트를 더 깊이 읽고 이해하는 심화된 독서의 과정이었다. 필사의 과정은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문맥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오래 기억하기 위한 이해 기반의 독서와 학습 과정이었다.

셋째, 내 글쓰기로 나아가는 전략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유튜버들은 필사로 익힌 어휘력과 표현력, 문장력을 활용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행간과 독서 노트에 적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텍스트를 요약하며, 개념과 사실, 표현을 활용해 자기 글을 쓰고, 텍스트의 구조를 따라 쓰기하면서 글쓰기 요령을 체득하며 자신의 글을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글쓰기 능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넷째, 유튜버들은 필사를 통해 자기 치유와 위안의 시간을 향유하고 있었다. 유튜버들은 필사를 하면서 잡념을 없애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있었다. 펜을 쥐고 집중해서 글씨를 쓰는 작업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화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일

상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로 삼고 있었다.

다섯째, 필사의 도구는 확장되고 적응하며 진화하고 있었다. 유튜버들의 필사 문화는 오른손 중심 글쓰기에서 왼손 글쓰기로 확장되고 펜에서 컴퓨터 타이핑으로 하는 디지털 필사로 적응하며 진화하고 있었다. 오른손 중심 문화에서 왼손을 사용함으로써 사고와 행동에서 균형감을 회복하고자 했으며, 첨단화된 사무 환경에 맞게 필사 방식을 적응시켜 디지털 필사의 실효성을 실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튜브의 필사 주체들은 능동적인 태도와 주도적인 방식으로 필사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다. 연구를 통해 유튜버들의 필사 문화는 전통적인 필사 문화의 특성을 공유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필사는 전통적으로 책을 만들고 글씨를 익히고 학습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정신을 수양하는 방편이 되어 왔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필사를 학습과 지식 전수의 방법으로, 글씨를 정서하면서 학인의 마음을 닦는 수양의 방편으로서 필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필사를 하면서 작품을 깊이 읽는 독자였으며, 필사를 통해 삶의 애환을 달래기도 했다.

유튜브의 필사 주체들은 여기서 더 나아갔다. 유튜버들은 전통적인 필사 문화의 특성을 공유함과 아울러 시대적 변화에 맞춰 더욱더 발전된 모습의 필사 문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유튜버들에게도 필사는 효율적인 학습의 요령이었으며, 깊이 읽고 이해하려는 심화된 독서 과정이자,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잡념을 이기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유튜버들은 필사에만 머물지 않고 자기 글쓰기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글쓰기 전략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가고 있었다. 또한 글쓰기의 효과를 강화하고 사고와 행동의 균형을 잡기 위해 왼손 글쓰기를 실험하고 있었으며, 현대적인 사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컴퓨터 키보드를 필사의 도구로 삼아 디지털 필사를 발전시켜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튜브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필사 문화의 계승과 발전은 오랜 역사에 걸쳐 이어져 내려온 귀중한 글쓰기 문화 유산으로서 필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REFERENCES

- [1] M. Wolf. (2008). *Proust and the Squid: The Story and*

- Science of the Reading Brain*. HarperCollins; H. S. Lee, trans. (2009). *A reading brain*. Seoul : Salim. pp.59-60.
- [2] A. Manguel. (2014). *A History of Reading*. Penguin Books; Chung Myung-jin, trans. (2016). *The history of reading*. Seoul : Sejong Book. 101-141.
- [3] J. S. Yang. (2005). The subject of the transcribing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production of the transcribing. *Korean History Citizen's Lecture*, 37, 96-100.
- [4] The rice field is about 200 pyeong in size, so you can guess how expensive a book was.
- [5] M. K. Kang. (2014). *History of books and knowledge in the Joseon Dynasty*. Seoul: Millennium Imagination. 364.
- [6] C. G. Ahn. (2003). *An old book* Seoul: Daewonsa. 60-67.
- [7] J. S. Yang. (2005). The subject of the transcribing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production of the transcribing. *Korean History Citizen's Lecture*, 37, 100.
- [8] Y. H. Kim. (2017). The development of Korean writing system and women in the Joseon Dynasty. *Feminism Research*, 17 (2), 144.  
DOI : 10.21287/iif.2017.10.17.2.127
- [9] D. H. Ahn. (2009). Write with your heart and write with your fingertips. Seoul: Hankyoreh Publishing, p. 65-66.
- [10] S. Y. Ko. (2018). For you who are afraid of writing. Seoul: Literary Publishing Company, p. 133.
- [11] O. J. Choi. (2013). Novel Class. Seoul: Blue Territory, p. 146.
- [12] YouTube refers to a person who uploads a video to YouTube, a video platform for Google.
- [13] J. Y. Lee. (2008). The cultural context of Hangul transcriptions in Korean transcriptions. *Korean Classical Women's Literature Studies*, 17 (17), 273-308.  
DOI: 10.17090 / kcwls.2008.. 17.273
- [14] J. S. Yang. (2005). The subject of the transcribing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production of the transcribing. *Korean History Citizen's Lecture*, 37, 96-100.
- [15] S. M. Yoo. (2011). A study on effective writing education using copying. *Literal Rush Research*, 2, 219-242.
- [16] S. O. Park & J. Yu. (2009).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Copying and Summarizing in English Education: Focusing on Case Studies, *Modern English Education*, 10 (2), 60-86.
- [17] I. K. Park. (2020. 10. 8). Eight out of 10 people in Korea use YouTube. <https://biz.chosun.com>.
- [18] I. S. Lee. (2017). The Effects of Expressive Writing Using Copy on the Learning of Korean Language by Vietnamese More Speaker.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Society*, 2017.8, 359-359.
- [19] H. S. Kim. (2004). a meta-analysis of the study of television narratives *Broadcast Research*, Winter Issue, 174.
- [20] C. Seymour, trans. K. S. Kim. (1990). *the narrative structure of movies and novels*. Seoul: Minumsa.
- [21] S. H. Kim. Y. K. Cho. & H. D. Kim. (2007). A study on how to analyze media text. *French Literature and Art*, 21, 103-133.
- [22] S. Mills. (1997). *Discourse*. London: Routledge.
- [23] L. R. Oswald. 2012d. *Marketing Semiotics: Signs, Strategies, and Brand Value*.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Marketing Semiotics: Gi Ho and Strategic Brand Value*. 86-100.
- [24] S. O. Kim. (2009). *The meaning of discourse and language analysis context discourse*. Paju: Korean Academic Information, 27-47.
- [25] C. Barker & D. G. Inski. (2001). *Cultural Studiis and Discorse Analysis*. London: Sage: S. Titscher, M. Meyer. (2000). *Methods of Text and Discourse Analysis*. London: Sage: Y. K. Cho. (2006). Analysis Methodology of Media Jung Chi Discourse, *Local Autonomy Studies*, 11, 19-40.
- [26] Y. S. CHae. (2010). *Writing Therapy: Theory and Practice*. Daeg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ess, 58-60.
- [27] C. Polac. (2016) *Laterality: Exploring the Enigma of Left-Handers*. London: ELSEVIER. 110.
- [28] Y. K. Cho. (2019). *Use your left hand! Your life will change*. Goyang: Irum, 186-189.

조영권(Young-kwon Cho)

[촬영]



- 1994년 9월 ~ 2014년 12월 : YTN 기자
- 2007년 : 전북대학교 정치학 박사 (미디어 정치 담론)
- 2015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 관심분야 : 미디어 담론, 뉴스 분석, 글쓰기 및 광고 마케팅 홍보, 유튜브(YouTube), 1인 미디어 문화 연구
- E-Mail : cykwon21@daum.net